

TV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50 굿모닝 채널A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박종진의 쾌도난마(재)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사랑했나봐)	05 KBC 뉴스지금 30 모닝와이드 3부
8 50 김부장의 경제특급	25 아침이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나라사랑)
9 50 신문으로 보는 세상	30 KBS 뉴스	00 TV 소설 (사랑아 사랑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50 니가 꿈꿔 놓았던 애기를 돌려주마(재)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세상(재)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50 채널A 뉴스	00 러브 인 아시아(재) 55 바른말 고운말	10 KBS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재) 50 위기탈출 넘버원(재)	00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크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00 SBS 정오뉴스 20 우리끼리 우리문화	00 대한후보 초청 토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12 10 월 먹지?(재) 40 관찰카메라 24시간(재)	00 KBS 뉴스12		20 MBC 스포츠 2012 MBC 탁구최강전 개인전	00 SBS 뉴스 30 테마스페셜(재)
1 50 박성규의 대선 스타일	00 KBS결집선 (영광의 재인)(재)	00 이야기쇼 두드림(재)		30 벤자민의 맛있는 여행
2 50 이연경의 세상만사	00 KBS뉴스 10 KBS 스페셜 (한중일 역사분쟁)	10 디큐멘터리 3일		00 SBS뉴스 10 건강클러브(재)
3 50 이연경의 대선만사	10 시사기획 창(재)	0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는(재) 30 KBS 뉴스타임 35 팔기가 좋아(재)	00 MBC 3시 경제뉴스 10 똑딱 아저씨	10 인문학열전
4 5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네트워크 특선 (필통 광주)	00 피쉬와 칩스(재) 30 TV 유치원	00 임미는 미법(재) 30 아웅다웅 동화나라	00 스킨2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KBS 뉴스5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상상친구 꾸메꾸메(재) 30 문화기행 세계의유신(재)	00 대통령 정경채 방송연설 (민주통합당 유영아 대변인) 2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30 생방송 투데이 1~2부
6 00 스포츠 베테밴 20 이영돈 PD의 막걸리 X파일(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통 1~2부	20 생방송 전국시대	
7 30 한양스캔들(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45 일일시트콤 (닥치고 패밀리)	15 일일연속극 (오자룡이 간다) 55 MBC 뉴스데스크	20 일일드라마 (그레도당신)
8 40 생방송 오픈 스튜디오(재)	25 일일연속극 (힘내요 미스터김)	2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는 50 의뢰인 K	50 MBC 청시특집 휴먼다큐 (사랑)	00 SBS 8 뉴스 30 KBC 뉴스 40 날씨와 생활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50 뉴스A	00 KBS 뉴스9		55 수목미니시리즈 (보고싶다)	55 SBS 대기획 (대풍수)
10 00 웰컴 투 시월드	00 2012 대선 정경채 연설 (새누리당) 20 KBS 뉴스라인 40 현장으로 동행	00 역사스페셜 50 아름다운 사람들	00 수목드라마 (진우치)	
11 10 박종진의 쾌도난마(재) ①:20 판권 요청 2012	30 KBS 뉴스 40 콘서트 필드 ①:30 HD TV영화관	20 해피 투게더	15 스티로토 토크 명사시리	15 스티부부소자기아
12 10 박종진의 쾌도난마(재) ①:20 판권 요청 2012	30 KBS 뉴스 40 콘서트 필드 ①:30 HD TV영화관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①:00 세상의 모든 다큐	25 MBC 뉴스24 55 MBC프리미엄 ①:55 행복한 시간, 숨	35 SBS 시사토론

# 박정아 “연기는 삶, 즐겁게 달려나가고 있어요”

KBS '내 딸 서영이'서 선머슴 같은 외과의 강미경 역



“솔직히 어려서 가수로 활동하면서 제  
가 걸도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  
각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때 좀 힘들었  
고요. 하지만 연기를 하는 지금은 연기가 내 삶  
자체입니다. 연기 안으로 들어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연기가 제 전부이고 또 전부  
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재미있고 즐  
겁고 성취감이 큼니다.”

그렇다고 주얼리 시절을 후회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려서부터 확고하게 ‘노래하  
는 사람’을 꿈꿔왔기에 노래는 그와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다.

주얼리 출신 박정아(31)를 최근 여의도  
KBS별관에서 만났다. 현재 전체 TV 프로그  
램 시청률 1위를 달리는 KBS 2TV 주말극  
‘내 딸 서영이’에서 선머슴 같은 외과의 강미경  
역을 맡고 있는 그는 연기를 시작한 이래  
가장 몸에 잘 맞는 옷을 입고 신나게 달려나  
가고 있다.

“제가 원래 털털한 성격이다 보니 이번 역  
이 저한테 잘 어울린다는 소리를 듣는 것 같  
아요. 그렇다고 편한 옷을 입은 건 아니에요.  
아직 연기가 편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매력적인 옷을 입은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  
히 이전 역할들에 비해 보시는 분들이 절 부  
담스러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웃음)”

2001년 주얼리로 데뷔했으니 11년이 지났  
다. 노래하는 게 꿈이었지만 ‘눈에 띄는 외  
모’ 덕에 2003년부터 연기도 하게 됐다.  
“솔직히 소속사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연기를 하고 싶지도, 하게 될 거라  
생각도 못했죠.”

당연히 ‘발연기’였다. ‘마들렌’ ‘날아라 종  
부전’ 등 영화와 ‘남자가 사랑할 때’ 등에 조  
연으로 출연했지만 욕만 먹었다.

“주얼리를 그만두고 변화를 모색해야 하  
기도 했고, 어느 순간 ‘연기로 망한 가수’ 중  
한 명으로 계속 거론되는 게 싫더라고요. 그  
럼 진짜 제대로 연기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  
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운 거죠. 새로운 인생  
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연기에 재도전하  
게 됐습니다.”

“내 딸 서영이’에서 맡게 된 강미경은 평소  
박정아의 모습을 많이 투영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너 연기가 아니던데’라는 말  
까지 들어요.(웃음) 시청자도 제게서 미경이  
같은 모습을 원했던 것 같고요. ‘내 딸 서영  
이’의 소현경 작가님과 ‘검사 프린세스’에서  
도 작업했는데 그때 작가님께서 제가 실제로  
는 새침데기가 아님을 ‘들켰어요.’”

그렇다고 노래를 그만둔 것은 아니다.  
“내년쯤 뮤지컬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제  
게 노래라는 재능을 주셨으니 어떻게든 계  
속 살려나가야죠. 하지만 당분간 개인적으  
로 음반을 낼 계획은 없고 연기에 집중하려  
고요.”

“내 딸 서영이’에서 맡게 된 강미경은 평소  
박정아의 모습을 많이 투영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너 연기가 아니던데’라는 말  
까지 들어요.(웃음) 시청자도 제게서 미경이  
같은 모습을 원했던 것 같고요. ‘내 딸 서영  
이’의 소현경 작가님과 ‘검사 프린세스’에서  
도 작업했는데 그때 작가님께서 제가 실제로  
는 새침데기가 아님을 ‘들켰어요.’”

그렇다고 노래를 그만둔 것은 아니다.  
“내년쯤 뮤지컬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제  
게 노래라는 재능을 주셨으니 어떻게든 계  
속 살려나가야죠. 하지만 당분간 개인적으  
로 음반을 낼 계획은 없고 연기에 집중하려  
고요.”

“내년쯤 뮤지컬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제  
게 노래라는 재능을 주셨으니 어떻게든 계  
속 살려나가야죠. 하지만 당분간 개인적으  
로 음반을 낼 계획은 없고 연기에 집중하려  
고요.”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2일(음 10월 9일 丁亥)

子 36년생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리라. 48년생 마음의 여유가 넘치는 날이로다. 60년생 신중하게 해나간다면 대수는 없다. 72년생 희망의 빛이 비취오는 모습이다. 84년생 일단 안정을 시키고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04, 55	午 42년생 버리고 있던 일을 해지수 수 있다. 54년생 기로에서 헤맨다면 아무데도 못가는 법이다. 66년생 자기 성찰과 극기야말로 활로를 개척하는 지름길이다. 78년생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부러 행하자. 행운의 숫자 : 15, 08
丑 37년생 의견이 분분하니 결론이 나지 않았다. 49년생 현재 당면한 일부터 마무리 하자. 61년생 수효가 늘면서 복잡해지겠다. 73년생 즐거움을 주는 이가 있다. 85년생 외관이 좋다면 실속도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85, 09	未 43년생 단순한 기준으로 쉽게 평가하려 한다면 오류가 따른다. 55년생 극한 상황에서 선취하라. 67년생 모르고 지나면 더 나았을 비밀을 우연히 듣게 된다. 79년생 성과가 부존재 하는 것은 당연하다. 행운의 숫자 : 39, 72
寅 38년생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다. 50년생 마음에 통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 62년생 허점이 보인다면 지금 보완해 줘야 한다. 74년생 편협한 사고가 관점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90, 30	申 44년생 무시해 왔던 징후들이 현실로 드러나리라. 56년생 이별수가 보이는구나. 68년생 내리막길이기엔 하지만 미끄러우니 주의해서 진행하자. 80년생 하나의 현상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행운의 숫자 : 29, 40
卯 39년생 순풍이 불고 있으나 강도가 약한 것이 문제다. 51년생 원하는 것을 얻고 크게 기뻐하라. 63년생 원리만 파악한다면 쉽게 가다가 잡힐 것이다. 75년생 절제된 언어로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94, 81	酉 45년생 예로써 살아가는 것이 삶 자체임을 인식하자. 57년생 능숙하지 못하다면 그르칠 수밖에 없다. 69년생 과욕한 만큼 앓을 수지만 마음을 비운다면 지키리라. 81년생 옆친 데 댈친 격이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5, 89
辰 40년생 실기전환한다면 활기 찬 미래를 열 수 있다. 52년생 억지를 부린다면 무리가 따르리라. 64년생 격식이 필요하므로 외형을 제대로 갖춰야겠다. 76년생 제반사가 지체되고 결과에 이르지 못한다. 행운의 숫자 : 12, 36	戌 46년생 모든 일이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겠다. 58년생 근거 없는 추측은 오관을 낳을 뿐이다. 70년생 아직은 서막에 불과하니 추이를 더 지켜봐야겠다. 82년생 오매불망하던 것이 현실화될 시점에 놓인다. 행운의 숫자 : 19, 48
巳 41년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 53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굵다. 65년생 선택을 잘 하면 실리를 취하게 되리라. 77년생 보고만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97, 77	亥 47년생 유사한 것 때문에 착오를 일으키면 곤란하다. 59년생 인맥의 활용이 득이 된다. 71년생 전개되는 정황을 객관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83년생 평소대로 행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 행운의 숫자 : 61, 4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

## EBS

06:00 극한 직업	《낯선 사람과는 말을 안 하는 아이》	14:45 영어유치원 외기버바	19:35 EBS 가족건강 프로젝트
06:30 미래 직업, 또는 직업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10 고양이 피피	20:25 지식채널e
07:00 몬스터 수확나라	《김연경의 기운 솟는 보통날의 음식》	15:35 몬스터 수확나라(재)	20:30 EBS 뉴스
07:30 꼬마 펠리 구구	11:20 세계대미팅	16:00 덩동명 유치원1~3(재)	20:50 세계대미팅
07:45 꼬마버스 타요	《공중의 아름다움 불리비아 3부 - 왕자의 실이있는 진실 아이마리족》	16:30 클로이의 오솔웃장(재)	21:30 한국기행
08:00 덩동명 유치원 1~3	12:00 EBS 정오 뉴스	16:45 출주는 곧 공애(재)	《기을 신약 4 - 설악산도 식후경, 설악의 바다》
08:30 뽀롱 뽀롱 뽀로로	12:10 TV 일화사정관	17:00 방귀대장 뽀롱이(재)	21:50 EBS 다큐 프리덤
08:45 출주는 곧 공애	13:00 EBS 다큐 프리덤	17:10 치료의 클래식 동요(재)	《EBS 3D입체다큐멘터리 - 제국의 수도, 앙코르톰》
09:00 방귀대장 뽀롱이	《EBS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 앙코르 외트》	17:30 달려라 카키(재)	22:50 극한 직업
09:10 치료의 클래식 동요	14:00 지식채널e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23:20 다큐1+
09:15 깨미	14:05 함께하는 한국어	18:00 생방송 특목 보너시 1~4	24:05 디온화 휴먼다큐 가족
09:30 달려라 카키	14:35 손 우리말 사전 1~2	18:50 곤	24:35 EBS 스페이스 공감
09:45 클로이의 오솔웃장		19:05 마텔도사	
10:00 부모			

##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2012 2학기 학교시험 대비(수학(하))	10:00 《(송점섭의 생명과학II)》	07:00 청소년 상담사 시험대비 강좌	15:20 EBS 초등 내공남남
00:50 2013 수능개념	10:50 《(송원희의 지구과학II)》	07:30 EBSe 생활영어	15:50 《(과학4-2)》
01:40 《(주성범의 개념 1)》	11:40 《(고동규의 꼼꼼한 기하와 벡터)》	08:00 9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20 《(과학5-2)》
02:30 《(문주범의 필(Feil)통(通)수학I)》	12:30 박복희 이수료 만나는 경제	08:30 독학사 교육 강좌	16:50 《(과학6-2)》
03:20 《(포기물 모르는 세시백의 수학II)》	13:00 2013 수능개념	09:05 배움 너머	
03:20 《(최영범의 개념으로 정연습부)》	《(최정현의 하위개념의 미적분과 통계기본)》	09:10 EBS TV 중1	17:20 초등개념 잡기(사회)
04:10 《(주성범의 개념 2)》	14:00 EBS포스(고교 Vocabulary)	09:50 《(도덕1-2)》	18:40 중학개념 끝장내기
05:00 《(윤정환의 수능영어 기민하기)》	15:00 2013 수능개념	10:30 EBS TV 중2	《(수학1-2)(재)》
05:50 《(이아영의 미법노트)》	《(LADY샘의 개념 있는 적분과 통계)》	11:10 《(도덕2-2)》	20:00 중학개념 끝장내기
06:40 2012 필스런	《(김민승의 한국지리 1등급 프로젝트)》	11:50 EBS TV 중3	20:40 《(역사)》
07:30 2012 기초논술(읽기의 왕)	18:00 2014대미 수능출제예매일(국어A형)	12:30 《(과학3-2)》	21:20 중급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1)
08:20 2013 수능개념	《(장인수의 물리II)》	13:20 친절한 수학 익힘책(6-2)재	22:00 중급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2)
09:10 《(이희나의 화학II)》	20:00 《(영어A형)》	13:50 중학 예비반(수학)	22:40 EBS 중3 퍼펙트 체크업
		14:30 중학 예비반(영어)	23:20 EBS 중2 퍼펙트 체크업
		15:10 발명이 팽팡!	24:00 EBSe 생활영어(재)

### 굿모닝 잉글리시

It'll come to me  
곧 생각이 날거예요

A : What's his phone number?  
B : Let me think a minute.  
A : Double two seven six two five--?  
B : Just a minute. It'll come to me.

A : 그 분 전화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B : 생각 좀 해보구요.  
A : 227-625--?  
B : 잠깐만요, 생각이 날거예요.

\* it = 원래는 알고 있었지만 잠시 생각이 나지 않은 일  
\* Just a minute.  
= One moment, please.  
= Just a second, please  
= Hold on, please

《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 한자이야기

巨卿之信(거경지신)  
클 거, 벼슬 경, 갈 지, 믿을 신

거경지신(巨卿之信)이란 ‘거경의 신의’라는 뜻으로, 굳은 약속을 뜻하며 성실한 인품을 나타내는 말이다.  
후한의 범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자가 거경이고, 산양 글항 사람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태학서 학문을 하는 유생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곳에서 여남 출신의 장소와 친구가 되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범식이 장소에게 말했다. “2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먼저 자네 양친에게 절하고서 자네를 보겠어.” 그리고는 기일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2년이 지나 그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장소는 어머니에게 그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장소의 어머니는 “2년간 천 리나 되는 먼 곳에 떨어져 있으면서 어찌 서로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하겠느냐?” 하고 말했다. “거경은 신의가 있는 선비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어머니는 “그렇다면 당연히 술을 준비해야지.” 하고 말했다. 그날이 되자, 거경은 과연 도착하였는데, 먼저 당(堂)에 올라 원백의 양친에게 절을 하고 한껏 회포를 풀 후에 헤어졌다.

《출전 『후한서(後漢書)』(독행열전(獨行列傳))》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

### 니하오 풍구위

八卦 bāguà  
그녀는 '팔괘'다?

팔괘(八卦 bāguà). 중국 고대伏羲氏(복희씨)가 만들었다는 8가지 괘(卦)로 건(乾), 태(兌), 이(離), 진(震), 손(巽), 감(坎), 간(艮), 곤(坤)을 말합니다. 우리 태극기에 그 중 4가지가 있어서 낯선 용어는 아니지요.  
八卦엔 본 의미 외에 ‘이거저저 시비하다’라는 뜻도 있어 ‘八卦新聞은 연에게 소식 혹은 유언비어를 뜻하기도 합니다. 흥풍의 한 잡지 창간인은 사람 사는 세상에 서 남녀가 뒤엎혀 이런 저런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이 결국은 음양에서 출발한 팔괘와 같다고 하여 잡지 표지에 팔괘 도안을 넣어八卦雜誌를 선보였고, 이八卦雜誌는 곧 연에게 소식을 다루는 잡지로 통합됩니다. “她是八卦—그녀는 팔괘야”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일을 알기 좋아하거나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꿰고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 오하오유 니혼고

うちのメンバーを紹介します。  
저희 멤버를 소개하겠습니다

A : はじめまして。高麗電子の朴と申します。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たします。  
B : こちらこそ、よろしくお願いたします。  
A : これから1年間、お世話になります。  
B : では、うちのメンバーを紹介します。

A : 처음 뵙겠습니다. 고려 전자의 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B :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A : 앞으로 1년간 신세 지겠습니다.  
B : 그럼, 저희 멤버를 소개하겠습니다.

はじめまして 처음뵙겠습니다.(첫 대면의 인사)  
~と申します ‘~と申します(~라고 합니다)’의 경우  
こちらこそ 이쪽이야말로(저야말로)  
お世話になります 신세 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よろしくお願いたします’의 의미)

《아스카일본어학원 강사 남궁경일》  
http://www.kjasuka.co.kr ☎ 232-1503